



■ 멕시코의 축제 — “우리는 파창게로!”

김 세 건

독립기념탑의 함성

1993년 7월 초, 멕시코에서 유학생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된 때의 일이다. 내가 방을 하나 얻어 생활하던 아파트의 주인 호르헤(Jorge)가 낮에 후다닥 들어오더니, 함께 ‘천사탑’ (El Torre de Ángel, 독립기념탑)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호르헤는 내게 뭔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스페인어 실력이 미천하던 때라 그의 말을 좀체 알아들을 수 없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축구 결승전을 한다는 얘기와 ‘천사탑’에 가자는 얘기 말고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축구를 보러 가자는 건지, ‘천사탑’이 독립기념탑을 달리 부르는 말인 줄도 모른 나는 그 탑이 무얼 말하며, 어디에 있는지, 또 축구를 하는데 ‘천사탑’엔 왜 가야 하는지, 하여튼 모든 게 오리무중이었다. 하지만 혼자 집에 있느니 차라리 그와 함께 가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 무작정 따라 나섰다.

호르헤와 함께 그의 친구 집으로 가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과 어울려 아메리카컵(La Copa América)의 결승전 경기를 지켜봤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축구를 보며 어느덧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열렬한 응원자가 돼 있었다. 멕시코는 아르헨티나에 겨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멕시코가 우승하기라도 한 양 차를 나눠 타고 함성을 지르고 경적을 울리며 시내를 향해 갔다. 물론 우리 일행만이 아니었다. 평소에는

말수가 그리 많지 않고 곱상하게 생긴 금발의 아저씨 호르헤도 얼굴에 멕시코 국기를 그리고는 괴성을 질러 대며 환호했다. 모두가 ‘비바 멕시코’를 외치며 하나가 됐다. 축제였다! 나는 독립기념탑, 이른바 천사탑을 중심으로 한 레포르마 대로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월드컵도 아니고 아메리카컵에서 준우승한 것을 가지고 멕시코시티 중심가의 핵심 레포르마 대로를 가득 메우고, 정확하게 말하면 ‘점거’ 하고 환호하는 모습이 이상할 뿐이었다. 나는 오직 일등만이 의미를 지니는 한국 사회에서 자라왔다. 게다가 공권력에 의해 폐쇄당하거나 해체당한 광장만을 경험했다. 그런 나의 인식체계로는 그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생일파티의 춤

멕시코 여자 친구 올가(Olga)가 자신의 생일파티에 초대했다. 멕시코시티 북쪽 지역에 있던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 데 꽤 고생했다. 올가의 어머니, 미혼의 두 오빠, 그리고 올가가 생일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 처음으로 멕시코의 대표적인 축제음식 몰레 포블라나(mole poblana)를 먹었다. 자장면 같은 몰레 포블라나를 보며 느낀 반가움도 잠시,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몰레의 표현할 수 없는 맛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아무 내색 없이 두 그릇을 맛있게 비웠다. 지금 생각해 봐도 내 무뎠던 미각이 자랑스러울 뿐. 나를 놀라게 한 건 몰레의 맛만이 아니었다. 내가 몰레를 먹고 있던 식탁 밑에 올가의 아버지가 묻혀 있다는 애길 듣고서 순간 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놀라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만의 조출한 파티가 열렸다. 쿠바리브레(cubalibre)를 한 잔씩 하며 애기도 하고 장기자랑이 벌어졌다. 그 자리에서 나는 못 부르는 노래 실력으로 〈아침이슬〉을 처량하게 불렀다. 파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노래를 가족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지금 생



멕시코 전통 음식 몰레 포블라나

각해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러다 클럽에서 춤추기도 하던 올가의 공연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본격적인 춤판이 벌어졌다. 아들과 어머니, 여동생과 오빠가 손을 맞잡고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게다가 ‘춤바람’이 지닌 부정적 사회인식에 익숙한 나로서는 올가 가족의 생일파티 문화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멕시코에서 살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춤판은 멕시코의 독특한 가족 문화라는 사실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춤판에 선뜻 어울리지 못하던 내 모습은 영 어색하기만 했다.

코요아칸(Coyoacán) 광장의 추억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코요아칸 광장. 프리다 칼로(Frida Kahlo) 박물관, 러시아 망명객 트로츠키(Leon Trotsky)의 저택을 비롯한 여러 명소들이 있어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다. 시간이 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면 늘 코요아칸 광장에 갔다. 특히 주말이면 코요아칸 성당을 중심으로 한 널따란 광장은 마당극, 음악공연, 전통춤, 마임공연, 그림전시, 노점상 등으로 항상 만원이었다. 식민 시기에 개종과 통치의 장이었을 코요아칸 광장은 오늘날 주민들의 삶과 문화의 공간이 됐다. 책방에 들러 이 책 저 책 뒤적거리기도 하고, 성당에 들어가 미사나 결혼식 등을 지켜보거나 우두커니 성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카페에 들러 잘 마시지도 않던 커피를 앞에 두고 인생을 고뇌하기도 했다. 때로는 광장을 배회하다가 각



전통악기 케나

가지 볼거리에 발걸음을 멈추곤 그 문화에 흠뻑 빠져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빠지지 않고 찾은 곳은 라틴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이 자리 잡고 있던 코요아칸 성당 옆 빈터였다. 그 친구들이 들려주던 곡, 특히 〈엘 콘도르 파사〉(El condor pasa)를 난 곧잘 읊조렸다. 그 음악을 들으며 나도 언젠가 케나(quena)를 배워 〈엘 콘도르 파사〉를 멋지게 연주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되새기곤 했다. 물론 아직도 결심으로만 남아 있지만 말이다. 내 마음의 안식처 코요아칸 광장은 광장문화의 보고(寶庫)였다.

산안드레스에서의 삶과 죽음



죽은자의 날 제단

멕시코 중부 모렐로스(Morelos) 주 테포스틀란(Tepoztlán) 무니시피오(郡)의 한 마을 산안드레스데라칼(San Andrés de la Cal, 이하 산안드레스). 그곳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지였다. 지도교수 마갈리(Magal Daltabuit)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산안드레스를 방문한 날은 1995년 11월 1일이었다. 마침 그 날은 ‘죽은 자(死者)의 날’이었

다. 마을의 공동묘지는 켄파소칠(zempaxóchil, 금잔화), 이른바 죽은 자의 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집집마다 크고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다. 규모면에서는, 한 해 앞서 방문한 적이 있는, 전국적으로 죽은 자의 날 축제로 유명한 멕시코시티의 산안드레스 믹스킵(San Andrés Mixquic)과는 비교가 안됐다. 하지만 산안드레스 사람들은 자기네만의 죽은 자의 날 의례를 행하면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죽은 자의 날로 시작된 산안드레스 사람들과의 인연은 일상에서 벌어지던 수많은 축제와 의례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처럼 산안드레스의 축제는 많은 축제와 의례가 사람들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톨릭 종교의례, 수호성인 산안드레스와 산살바도르(San Salvador)를 기리는 마을 수호성인 축제, 옥수수 생산과 관련된 십자가의 날, 동굴기우제, 페리콘(pericón) 십자가의 날, 물의 날, 죽은 자의 날 등의 생산의례와 축제, 세례식,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등의 개인 통과의례, 독립기념일을 비롯한 국가의례…….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축제 외에도 산안드레스 사람들은 테포스틀란 읍을 비롯한 이웃 마을의 수호성인 축제에도 함께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다. 이곳의 생활에 빠져들면서, 나는 어느새 마을의 축제력(祝祭歷)을 세어 보며 축제를 기다렸다. 주말에는 어느 집에서 파티가 열리는지 궁금하여 마을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축제는 내 삶의 활력소였다. 축제날이 오면 들뜬 마음에 괜히 필드노트를 내려놓고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몸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한마디로 축제는 내

가 산안드레스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길이었다. 그렇게 나는 한 사람의 칼레로(Calero)가 됐다. [칼레로는 ‘석회 굽는 사람’이란 뜻. 산안드레스 사람들은 20세기 초중반까지 석회(Cal)를 생산해 주변 지역에 팔았다. 이런 이유로 산안드레스 사람을 일컫는 별칭 칼레로가 생겼다. 일부 사람은 가끔씩 내게 “김!, 너도 칼레로다”라고 말하곤 했다.]

멕시코의 축제¹⁾



멕시코의 축제

멕시코는 축제의 땅이다. 1년 365일 가운데 100일은 축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마 개인의례까지 포함하면 축제일수는 더 많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한 해 가운데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축제에 모두 참여하며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축제가 멕시코 사회와 사람들의 삶을 이루는 바탕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멕

시코 사람들은 축제와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조금 비하해 ‘파창게로’(pachanguero)라고 부른다. 파창가(pachanga)는 피에스타(fiesta, 축제)의 속어다. 파창게로는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살다 보면, ‘파창게로’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는다. 그렇기에 멕시코의 대문호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는 『고독의 미로』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축제는 멕시코 사람들의 유일한 사치다. 바로 이 축제가 영화, 휴가, 앵글로색슨 족의 주말 각테일파티, 부르주아지의 리셉션, 지중해 사람들의 커피를 대신하고 있다.”²⁾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사라우스(Zarauz)는 축제의 일상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멕시코 사회에서 의례와 놀이는 기본이다. 멕시코 사회는 한계와 부족함이 많지만 그 자신들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걸 단념하지는 않

1) 『우리는 파창게로—멕시코 사람들의 축제와 의례』 (김세진, 지식산업사, 2010) 참조.

2) Paz, Octavio, 1993, *La Laberinto de la Soledad*,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 53.

는다. 기념하기 위해선 어떤 핑계거리라도 좋다. 따라서 멕시코 사람들은 한해를 가득 채운 매우 광범위한 축제력을 가지고 있다. 축제가 없는 멕시코 사람들의 일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³⁾

이런 모습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은 서로 ‘파창게로’라고 부르게 됐다. 어쩌서 멕시코에는 축제와 의례가 많을까? 지금까지 지속된 까닭은 또 뭘까? 멕시코에 축제가 많은 일차적인 이유를 대개는 원주민과 서구 문화의 혼합에서 찾는다. ‘혼종성’ (Culturas híbridas)은 멕시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즉 원주민과 스페인,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멕시코의 오늘을 낳았고, 이 만남은 멕시코 사람들의 일상에서 융합되어 혼종성으로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다양하고 즐비한 축제의 수는 두 문화의 전통적 축제력의 결합, 다시 말해 원주민 의례와 남부 유럽 가톨릭의 수많은 성인의 날이 결합된 것에서 비롯했다.⁴⁾

멕시코의 축제와 의례가 지닌 생명력이란 한마디로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신성성이라고 하겠다. 축제는 축(祝, 축하·놀이)과 제(祭, 제의)를 포함하는 문화현상이다.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은 제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의는 기본적으로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스페인 정복자와 함께 들어온 가톨릭은 다양한 멕시코 원주민 사회와 문화를 해체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였다. 다시 말해 가톨릭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인종주의, 백인우월주의, 서구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근대 유럽의 식민주의를 강제하고 각인시키는 영혼의 정복자였다. 영혼의 정복은 오늘날까지 멕시코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유럽화된 멕시코’를 꿈꾸며 서구화에 매진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가톨릭이 비-서구사회에 대한 정복의 기술이 돼 가면서 차츰 서구인들의 일상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신학’만 남았다. 이와 달리 멕시코 사회는 가톨릭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산안드레스의 주민들처럼 멕시코 사람들은 가톨릭을 자신의 삶과 의례 속으로 받아들여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다. 일상화된 ‘멕시코 가톨릭’ 속에서, 부정돼야만 했던 원주민 전통 문화도 가톨릭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융합하고 창조적으로 반응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가 로마가톨릭의 마지막 보

3) Zarauz López, Héctor L., 2000, *México: Fiestas cívicas, familiares, laborales y nuevos festejos*, México: CONACULTA, p. 11.

4) Redfield, Robert, 1930, *Tepoztlan, a Mexican Vill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91.

루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바탕일 것이다. 이렇게 ‘멕시코 가톨릭’은 일상에서 탄생하고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세속화, 탈종교화, 도시화 등이 특징이 된 현대 멕시코 사회에서 가톨릭의 신성성과 엄격성은 많이 약화됐다. 그렇지만 일상에 깊게 뿌리 내린 멕시코 가톨릭은 여전히 우주,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끊임없이 세속적인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멕시코 가톨릭은 세속화로 변질되는 축제를 지탱하는 힘이자 의미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무엇보다 멕시코 가톨릭의 구심점 과달루페 성모(La Virgen Guadalupe)는 멕시코에서 많은 축제와 의례들이 성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멕시코의 성당 안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한 송이의 야생화, 초, 옥수수 등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 소망,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다. 사람마다 마을마다 일상화된 가톨릭은 갖가지 차이의 문화를 낳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 운동과 근대화 과정에서 ‘미신’ 철폐의 일환으로 당(堂)과 같은 마을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한국의 농촌과 달리 멕시코 농촌에서 수많은 축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른바 일상의 가톨릭에 바탕을 둔 종교적 신성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반대로 멕시코 가톨릭은 주민들의 일상에 다양한 축제와 의례를 배치하고 실현함으로써 종교적 힘을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 가톨릭의 신성성만으로 ‘독립기념탑의 함성’과 같은 멕시코의 축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축제에는 축제만의 매력이 있다. 그 매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상의 전도(顛倒)와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축제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흐름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축제는 순간적일지라도 우리들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출구 없는 욕망과 격정적인 욕구를 모두 다 자유롭게 풀어 놓아준다. 멕시코에서 행해지는 축제의 빈번한 횃수, 축제에서 나타나는 화려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열정 등을 보면, 마치 멕시코 사람들의 삶은 축제 없이는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아 보인다. 멕시코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평상시에는 입어 볼 수 없는 옷을 입거나 옷을 다 벗어 버릴 수도 있고, 요란한 치장과 화장, 분장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한다. 조용하기만 하던 멕시코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휘파람을 불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공중에 폭죽을 쏜다. 축제를 통해 하나의 사회는 온갖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들은 자기네 신을, 원칙을 그리고 법을 조롱한다. 그리고 자신을 부정한다. 옥타비오 파스는 이를 “영혼의 무게를 내려놓는다”⁵⁾고 표

현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시공의 범위를 넘어서서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실현되는 경험을 한다. 성탄절, 부활절, 죽은 자의 날 등 비일상적 상황에서 신, 성인, 죽은 조상, 다른 영혼 등과 만나는 행위를 통해 현실적인 삶의 고단함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축제는 일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해방되어 일상생활을 넘어서는 게 아니다. 축제가 지속적으로 일상을 전복한다면 그건 축제가 아니라 혁명이다. 축제는 스스로 파괴하고, 그것에서 나온 재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결국 축제는 비일상적이면서 동시에 일상으로 수렴되며 일상의 연장선 위에 있다. 물론 축제를 통한 비판과 새로운 소망이 담긴 일상은 과거와 동일한 일상이 아닐 것이다. 산안드레스 마을처럼 한 지역의 축제는 보통 종교 행사, 생산 활동, 역사적 또는 특정한 사건의 기념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닌 행사들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는 일상에서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된다. 한마디로 축제는 비일상적인 특별 행위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한 과정인 경우가 많다. 한 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멕시코 사회의 수많은 축제 또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많은 축제가 탈-일상성을 확대·강화하기보다는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축제의 일상성에서 멕시코의 축제가 지속되는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멕시코의 축제와 의례의 중요한 역할은 상호소통과 동질성의 형성이다. 축제는 멕시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신성(神聖)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가족 또는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멕시코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과 함께하며 역사, 가치, 규범을 새롭게 인식하고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멕시코의 축제와 의례에는 보통 가족, 친족, 의사친족, 친구, 동료, 이웃 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한다. 더욱이 이 축제와 의례에서 사람들은 대부모(padrino/madrina)·공부모(compadre/comadre)라는 새로운 의사친족 및 사회 관계망을 만들어 낸다. 나아가 마을 주민들은 서로 부조하는 프로메사(promesa)를 통해 자기 마을만의 독특한 축제를 구성하며 마을 정체성을 형성한다. 축제와 의례를 통한 동질감 형성은 한 가족 또는 한 마을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 예로 테포스틀란 무니시피오를 구성하는 각

5) Paz, Octavio, 1993, *La Laberinto de la Soledad*, México: Fonde de Cultura Económica, p. 54.

바리오와 마을은 다른 마을의 축제 때마다 초·꽃·폭죽 등의 프로메사라는 상호 부조로 축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세상을 꿈꾼다. 축제는 변하고 있지만, 축제는 여전히 멕시코에서 개인과 개인, 마을과 마을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기제다. 일상의 힘은 결코 산안드레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멕시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마을과 사람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축제는 정적인 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역동의 장으로 멕시코 문화의 본질을 이룬다. 뭔가를 함께 축복하고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멕시코 사람들의 삶이다. 멕시코 사람들은 축제 속에 살며 축제를 통해 자연, 역사, 그리고 문화와 소통한다. 그렇기에 멕시코 문화는 생기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축제로 재현된 일상의 힘으로 멕시코 사람들은 유럽인의 정복과 함께 수백 년 동안 구조화된 질곡 속에서도 자기네만의 사회·정치·경제·문화·가치를 창조했다. 이 힘은 갖가지 문화가 지니는 차이를 존중해주는 가운데, 자본주의 가치로 동질적이 돼 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도 자기네만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멕시코의 길’을 찾는 바탕이 되고 있다.